

출소자 대상의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이 동 훈 김 시 형[†] 권 은 비 서 현 정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출소자의 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출소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사업을 받고 있는 출소자 10,3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중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적 특성,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출소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가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기혼 상태일수록,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재범확률이 낮아졌다. 둘째, 보호사업 중, 숙식제공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이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지원을 받지 않는 출소자일수록,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참여한 출소자일수록,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발적 상담에 참여한 출소자는 상담을 전혀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출소자, 보호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재범여부, 효과성 검증

[†] 교신저자 : 김시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40-1984, E-mail: shkim1857@gmail.com

우리나라 출소자의 재범률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2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국가지표체계, 2016), 경찰청 통계에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검거된 사람을 기준으로 재범자 비율은 평균 47.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통계청, 2016). 재범이란 개인이 범죄 행동을 다시 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복된 범죄행위에 참여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Maltz, 2001). 법무연수원의 '2016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범죄자 중 특별법범을 제외하고 형법범죄자의 재범률은 2012년에 67.4%, 2013년에 72.8%, 2015년에 70.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형자 수는 2005년 32,969에서 2015년 35,09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7).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 14,342명에서 18,316명으로 급증하여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법무연수원, 2017). 이렇게 재범비율과 수형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출소자가 출소 후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유추한다(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2017). 출소는 단지 수형자가 일정 기간을 수감시설에서 지내다가 교도소를 나와 일반 사회로 이동하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며,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이 실패할 경우 재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최영신, 2009). 또한 재범자들이 범죄 초기에는 경범죄로 시작하지만 범죄횟수가 증가할수록 강력범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재범 문제는 범죄유형의 심각성과도 관련이 있다(김승만, 신연희, 2005).

출소자의 재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들이 존재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소자의 재범을 높이는 요인들로 성별,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 낮은 자존감, 알코올 중독 및 남용과 성장기 트라우마 사건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과 직업 불안정성 및 사회적 결속의 미비 등이 보고되고 있다(장희숙, 2008; Berg, & Huebner, 2011; Piquero, Jennings, Diamond & Reingle, 2015, Watt, Howells, & Delfabbro,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자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민식, 김혜선, 2009; 정유희, 손외철, 2017; Langan & Levin, 2002; Piquero et al., 2015), 나이가 많을수록 재범 확률이 높고(Craig, 2008; Skelton & Vess, 2008), 성범죄의 경우 50대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16). 반면, 어릴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정유희, 손외철, 2017; 최인섭, 박철현, 1994; Harris & Rice, 2007; Piquero, Jennings, Diamond & Reingle, 2015), 10대 때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점을 찍고, 중년기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Sampson & Laub, 2003)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출소자는 독신 혹은 가정이 와해된 경우가 많으며, 낮은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높는데(류석진, 노지애 등, 2016), Sampson과 Laub(1990)에 의하면 결혼하여 가정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독신, 미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관습적 제도 및 규범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서 범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사회적인 결속이 강화되면 재범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며(이현희, 2004; Kendler, Lönn,

Sundquist, & Sundquist, 2017), 부모와 형성된 애착이 강할수록 수감횟수가 낮다고 보고된다(윤기원, 이동훈, 2017; Benda, 1997; Benda & Whiteside, 1996; Simons, Whitbeck, Conger, & Conger, 1991). 출소자의 음주유무 또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소자의 음주수준은 재범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많은 수의 출소자들이 음주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고명숙, 천성수, 박영일, 김명석, 박종순, 2000; 김지선, 정슬기, 2015; Dowden, & Brown, 2002; Makkai & Payne, 2003).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출소자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파악을 통해 출소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당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출소자들은 출소 후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좌절로 사회복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출소자들은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는 출소자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협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도 연결이 된다(원혜옥, 2014). 김영식과 서호영(2009)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 및 재범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교정, 보호, 갱생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수용자 사회복지 관련 지원이 수용 초기단계부터 원활한 사회복지를 고려해 출소 후까지 필요하며, 사회·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 보호사업은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단은 1942년 사범보호회로 시작하여,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과 함께 정식으로 갱생보호회로 설립됐고,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었다. 이후 2009년 법무부 산하의 출소자 자립지원 복지기관임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배임호, 2013) 현재 전국에 본부와 17개 지부, 1개의 센터, 7개의 지소에서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자립의식 고취를 도모해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70조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다(박혜경, 한순옥, 박시연, 2017).

보호사업 중 2002년부터 개시된 숙식제공은 출소 후 거주할 환경기반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생활관 시설을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음식 및 의복 등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2016년 2,273명에게 지원되었다. 2005년부터 개시된 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차주택을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2016년에는 152명에게 지원됐다. 2009년부터 개시된 창업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호사업으로 2016년 14명에게 제공됐다. 또한 2001년부터 개시된 직업훈련은 출소자들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는 보호사업으로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전문학원을 등록해주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자동차정비, 기계선반, 정보통신, 대형차량, 컴퓨터, 전자전기, 요리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을 2016년 2,882명에게 지원했고 1,298명이 자격

증을 취득했다. 또한 2001년부터 개시된 취업 지원은 출소자들의 취업지원 및 취업자리를 알선해주는 보호사업으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의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지원 및 사후관리를 2016년 4,997명에게 지원했고, 취업자리 알선은 4,715명에게 지원됐다. 그 밖의 질병 및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구호양곡 등을 지원하는 원호지원 사업이 2016년 5,136명에게 지원됐으며,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진행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기타 보호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공단의 다양한 보호사업이 출소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을 보면, 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소자의 사회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며(박혜경 외, 2017), 공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그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한 대상자들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원홍, 원일, 2017).

또한 최근에는 수형자와 출소자의 재사회화 도모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어서(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이철호, 이민규, 2007; Kadish, Glaser, Calhoun & Risler, 1999; Lee, Uken, & Sebold, 2007; Lancaster, Balkin, Garcia & Valarezo, 2011), 공단에서는 출소자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17개 지부별로 1명 이상의 상담심리, 임상심리, 범죄심리,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석

사 급의 상담사를 배치하여 출소자와 출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6년 심리상담 서비스가 5,103명에게 지원되었는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숙식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에게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과 개인 심리상담을 3회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타사업 등의 다른 보호사업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출소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는 실시된 지, 약 5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자 대상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배임호(2013)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출소자 지원이 물질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심리적·정신적 장애요인과 사회 및 환경적인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고,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출소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효과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해결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재범률이 떨어졌으며(Lee, Uken, & Sebold, 2007), 심리교육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상담프로그램 참여 효과성을 살펴봤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그룹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다(Lancaster et al., 2011).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받은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살펴봤을 때 상담지원을 받은 집단은 25%만 재범을 보인 반면, 상담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은 64%가 재범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dish et al., 1999).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독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인지행동치료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유의하게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Hanson et al., 2002; Kim, Benekos, & Merlo, 2016; Lösel, Schmucker, 2005). 독일의 경우는 각 주(州)의 교정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출소자의 사회복지지원과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수연, 2015).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연구는 전무하며 출소자가 아닌 수형자 및 보호관찰 대상의 효과성 연구(강선경, 박인숙, 2005; 이철호, 이민규, 2007; 신식 외, 2006)가 소수 있는 정도이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2년에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및 보호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가 출소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개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미치는 실증적 결과를 확인해 추후 출소자 관리 및 지원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과 보호사업(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참여여부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위 두 가지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출소자의 심리상담 참여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출소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이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출소자의 보호사업(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참여가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출소자의 심리상담 서비스 참여가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와 체결한 2017년 학술연구용역(공단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사업인 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원호지원, 자녀학업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출소자로 관련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연구진행절차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공단은 출소 후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소자로부터 개인정보 및공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료활용 및 분석에 관해 서면 동의를 받았다.

공단은 2015년도부터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할만한 누적 자료는 2017년부터 가능했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17년 1월

표 1. 연구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분류	변인	값	빈도(명)	비율(%)
개인적 특성	성별	남성	9,570	92.5
		여성	778	7.5
	나이	10~19세	434	4.2
		20~29세	1,657	16.0
		30~39세	2,175	21.0
		40~49세	2,693	26.0
		50~59세	2,542	24.6
	기혼유무	60세 이상	847	8.2
		미혼 및 이혼	7,846	75.8
	음주유무	기혼 유	2,502	24.2
음주 무		3,538	34.2	
보호 사업	숙식지원	음주 유	6,810	65.8
		숙식지원 무	9,544	92.2
	취업지원	숙식지원 유	804	7.8
		취업지원 무	7,949	76.8
	직업훈련	취업지원 유	2,399	23.2
		직업훈련 지원 무	8,631	83.4
	심리상담 서비스	직업훈련 지원 유	1,717	16.6
		경험 없음	7,304	70.6
의무상담		244	2.4	
재범	자발적 상담	2,800	27.1	
	유	1,235	11.9	
전체	무	9,113	88.1	
	전체	10,348	100.0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단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가 무작위 샘플링(random sampling)을 기반으로 했으며, 난수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무작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해 제공받았다. 분석에는 12,000명의 무작위 추출 출소자 데이터 중 1,652개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출소자 10,348명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 보호사업 참여여부(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서비스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재범

본 연구에서 재범의 정의는 출소 후 보호사업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가 재범으로 인하여, 다시 보호사업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재범은 2017년 12월 1일 기준, 출소자가 공단의 보호사업을 받은 이후 재범으로 수감된 뒤 다시 출소하여 보호사업 서비스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재범여부는 출소자가 보고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자료가 아닌 공단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재범 변수는 이분형 변수로 재범 경험이 없는 경우 '0', 재범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

본 연구에서는 분석 가능한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공단을 통해 받은 출소자의 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0', 남성이 '1'으로 코딩되어 있으며,

나이는 연속형 변수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였다. 기혼유무는 미혼 및 이혼인 경우 '0'으로 기혼인 경우 '1'로 코딩되었다. 음주유무는 2017년 보호사업에 참여한 당시를 기점으로, 현재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0', 음주를 하는 경우 '1'로 정의하였다.

보호사업(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본 연구에서 보호사업은 공단이 제공하는 여러 보호사업 중 양적 자료 분석이 가능한 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만을 사용하였다. 다른 보호사업의 경우(창업지원, 주거지원, 출소자 가족 지원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적 자료 분석에 활용하기에 자료가 너무 적거나(ex. 표본 크기가 20명 미만 등), 특정 보호사업의 경우, 공단에서 아직 자료가 축적되지 않거나 양적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ex. 개방형 질문)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에 위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숙식지원은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생활관 시설을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음식 및 의복 등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은 출소자들의 취업지원 및 취업자리를 알선해주는 보호사업으로 출소자의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은 출소자들에게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는 보호사업이다. 숙식지원과 취업지원, 직업훈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호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0'으로 해당 보호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로 정의하였다.

심리상담 서비스

본 연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는 심리검사 및 해석,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받은 횟수로 정의하였다. 공단에서는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3회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규정이 존재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숙식지원 대상자의 경우 1-3회의 상담을 받은 경우 의무상담이라고 정의했으며, 숙식지원 대상자 중 4회 이상의 상담을 받은 경우 규정에 의한 의무상담이 아닌 출소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진행한 것이기에 자발적 상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공단에서는 숙식지원 서비스가 아닌 다른 보호사업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1회 이상의 상담 또한 자발적 상담으로 정의하였다. 공단의 서비스 대상자 중 이렇게 숙식지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만 의무상담을 받도록 규정한 이유는 여러 보호사업 대상자 중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경우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줌으로써 자활을 지원하려 함이다. 또한, 여러 보호사업 대상자 중 숙식지원 대상자들만 공단의 각 지부에 위치한 건물에서 숙식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출소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서 쉽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출소자들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공단을 방문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는 숙식지원 대상자들만큼 지리적 접근성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전체 보호사업 참여 대상자 중 의무적이던 자발적이던 심리상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심리상담 경험이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은 출소자들의 경우 상담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6회까지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은 출소자는 '0'으로 의무상담은 '1'로 자발적 상담은 '2'로 코딩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 SPSS 2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첫째, 연구변인들의 빈도와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위계적 중다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과 보호사업(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된 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 검증은 재범과 관련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의무 상담을 받은 출소자들을 비교하고 다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들과 자발적 상담을 신청한 출소자들을 비교하였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크기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는 승산비(Odds Ratio; OR)를 통해 확인하였다(Cohen, 1988).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재범여부, 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 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서비스)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변인인 재범과 모든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적 특성인 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

표 2. 연구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재범	-								
2. 성별	-.083**	-							
3. 나이	.124**	.008	-						
4. 기혼유무	-.098**	.060**	.272**	-					
5. 음주유무	.072**	-.195**	-.016	-.012	-				
6. 숙식지원여부	.125**	-.038**	.088**	-.102**	.015	-			
7. 취업지원여부	-.052**	-.040**	-.066**	.036**	.004	.009	-		
8. 직업훈련여부	-.068**	-.003	-.008	.041**	-.004	-.041**	.086**	-	
9. 심리상담 서비스	-.043**	-.029**	-.116**	-.021*	.051**	.128**	.132**	.066**	-

주. ** $p < .01$

유무를 투입하여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범확률이 0.20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한 출소자들보다 재범확률이 0.32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높을수록 재범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1.5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보호사업 중 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을 투입하여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숙식 지원을 받는 출소자의 경우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2.1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0.74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경우도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보다 재범확률이 0.559배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

	B	S.E.	Wals	df	OR	OR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1)	-1.572***	.237	43.888	1	.208	.130	.331
나이	.040***	.003	240.688	1	1.041	1.036	1.046
기혼유무(1)	-1.115***	.091	150.822	1	.328	.274	.392
음주유무(1)	.438***	.071	37.546	1	1.550	1.347	1.783
Nagelkerke R ²				.090			

주. *** $p < .001$

표 4. 보호사업(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

	B	S.E.	Wals	df	OR	OR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1)	-1.556***	.238	42.906	1	0.21	.132	.336
나이	.036***	.003	193.59	1	1.03	1.032	1.042
기혼유무(1)	-1.000***	.092	118.57	1	0.368	.307	.440
음주유무(1)	.440***	.072	37.28	1	1.552	1.348	1.788
숙식지원	.759***	.091	69.76	1	2.137	1.788	2.553
취업지원	-.293***	.082	12.73	1	0.746	.635	.876
직업훈련	-.581***	.102	32.26	1	0.559	.458	.684
Nagelkerke R ²			.111(.021)				

주. *** $p < .001$

표 5.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

	B	S.E.	Wals	df	OR	OR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1)	-1.570***	.238	43.611	1	.208	.131	.332
나이	.035***	.003	176.794	1	1.035	1.030	1.041
기혼유무(1)	-.991***	.092	116.369	1	.371	.310	.444
음주유무(1)	.446***	.072	38.300	1	1.562	1.356	1.799
숙식지원	.861***	.108	63.662	1	2.365	1.914	2.922
취업지원	-.256**	.083	9.615	1	.774	.658	.910
직업훈련	-.560***	.103	29.879	1	.571	.467	.698
상담회			14.352	2			
의무상담	-.229	.184	1.547	1	.795	.555	1.141
자발적 상담	-.298***	.080	14.032	1	.742	.635	.868
Nagelkerke R ²			.114(.003)				

주. ** $p < .01$, *** $p < .001$

개인적 특성과 보호사업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의무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는 재범여부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OR = -.795$,

$p > .05$). 반면, 상담을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서 받은 출소자는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742$, $p < .001$). 이는, 상담을 전혀 받지 않은 출소자나 의무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는 재범확률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공단의 보호사업과 심리상담 서비스가 출소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기혼유무, 음주유무)이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기혼 상태일수록,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재범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Piquero 등(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 범 죄자일수록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민식과 김혜선(2009)의 연구에서도 남성 폭력범이 여성 폭력범보다 재범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정유희, 손외철, 2017)에서도 재범집단이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 죄자 연령과 재범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결

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Craig, 2008; Skelton & Vess, 2008)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정유희, 손외철, 2017)와 재산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최인섭, 박철현, 1994)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범 죄자 연령과 재범간의 관계는 국내외 연구 여부, 범 죄자유형과 형집행수준 등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이나 형사사법적 특성(범 죄유형, 재범 횟수 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소자의 기혼유무와 재범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재범을 막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는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이현희, 2004; Kendler et al., 2017). 가족의 지지가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Visher & Travis, 2003), 가족 및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한 출소자는 낮은 재범률을 보여주었다(Adorjan & Chui, 2014). 이인곤(2015)의 연구에서도 수형자들이 수감 기간 동안 가족 관계에서 단절 및 해체를 경험하게 되면 출소 후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해외의 경우처럼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개입이 수감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이철과 정진연(201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수감기간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출소 후에도 출소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수형자와 출소자에게 자녀양육 교육과 1:1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Family Works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빌레펠

트 교도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수형자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그룹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유지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수연,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출소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 예방에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 국내에서도 수감기간 동안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소 후에도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국가와 정부기관이 제공하여 수감기간 중 가족의 해체를 막고, 출소 후에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혼 상태가 재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출소자가 기혼 상태임에도 부부 간의 별거, 갈등, 이혼 소송, 해체 과정에 있는 출소자 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의 응집도가 재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미 있을 것이다.

음주 유무와 재범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을 때는 감정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Cooter, 1998),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수준이 재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지선, 정슬기, 2015) 많은 범죄자들이 음주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명숙 외, 2000; 김명석, 이경중, 김소연, 서경현, 박영일, 2002). 음주를 하는 범죄자는 자기통제가 어려우며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진경, 신현주, 2012; Rohsenow, 1983). Needham과 그의 동료들(2015)은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남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들은 치료에 참여한 출소자들보다 재수감될 가능성이 2.5배 이상 높았다.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기관의 지원을 받는 동안 그들의 음주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점진적으로 음주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범 유발의 한 요인으로 알려진 출소자의 음주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알코올중독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소 후의 음주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음주행동문제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출소자의 알코올 중독 개입 및 치료에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사업 중 숙식 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숙식지원을 받지 않는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 후 거주할 환경이나 의지할 가족이 없어 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숙식지원 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출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출소 후 자활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소하지만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조희원, 도광조, 2014) 사회복귀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좌절 경험은 자활의지를 감소시키며 재범의 위험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이동훈 외, 2014). 실제로 출소 후 경제적, 심리적 기반이

없는 출소자들은 사회 재적응 의지를 상실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듯 출소자에게 있어 출소 후 사회 재적응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기반은 중요하기 때문에(박혜경 외, 2017), 해외 및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소 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출소 후 지낼 처처가 없는 출소자들이 갱생보호법인이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낼 동안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돕고 있으며, 독일도 출소 후 거주환경이 불안정한 출소자에게 일정 금액의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소자가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신이철, 정진연, 2014). 우리나라 또한 공단에서 숙식지원 대상자들에게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생활관을 제공하고 음식 및 의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보호사업이 재범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출소자들의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는 전문가의 역량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공단에서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 전문가의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에 참여하는 출소자는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출소 후 개인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가

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Harrison과 Schehr(2004)의 연구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재범 확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Newton 등(2018)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국내의 출소자들에게도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이 재범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491명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홍과 원일(2017)의 연구에서는 중도탈락 없이 프로그램 기간을 이수하고 이후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들은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밖에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남상철, 박상석, 2011; 이윤호 외, 2006; Kruttschnitt, Uggen, & Shelton, 2000), 출소 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인근, 2015). 취업을 통한 고용은 출소자들의 재범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Giordano, Cernkovich, & Rudolph, 2002; Sampson & Laub, 2003), 적극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자가 자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과 자격이 없으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유형이 제한되므로(Skardhamar & Telle, 2012),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노동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수형자들이 출소 후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전문화하고(김기홍, 2010; 최응렬, 김종길, 2011), 출소자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의무 상담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한 출소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확률에 대한 심리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해외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출소자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재범확률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의 재범확률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adashazar, 2017). 또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효과를 확인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성 범죄자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재범확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Hanson et al., 2002; Kim, Benekos, & Merlo, 2016; Lösel & Schmucker, 2005), 심리상담에 참여한 소년범들은 참여하지 않은 대상에 비해 재범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Kadish et al, 1999; Lancaster, Balkin, Garcia & Valarezo, 2011). 또한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해결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했을 시 재범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Uken, & Sebold, 2007), 약물사용 장애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내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치료를 받은 회기 수가 많을수록 출소 후 재범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Rothbard, Wald, Zubritsky, Jaquette, & Chhatre, 2009).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해에 대한 치료법으로 개발되어 감정조절, 마음챙김, 수용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DBT(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또한 영국의 교정시설에서 여성 수용자들의 정신 건강 향상 및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Gee & Reed, 2013).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여성 수형자들에게 변증법적 치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 지지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Hulbert, 2010) 여성 수형자들의 정신 건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진행 절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심리상담의 다양한 접근 방식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바탕으로 수감자, 소년범, 약물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철호와 이민규(2007)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심리적 개입이 수형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며 상태분노를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했고, 강선경과 박인숙(2005)은 보호관찰 대상의 청소년에게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보호관찰 대상의 공격성을 낮추고 사회재적응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수형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공단 또한 2012년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출소자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정서적 환기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철수 및 단절되어 있는 출소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응과 재범예방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재범예방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다(이동훈, 김보라, 강수운, 김진혁, 2017).

하지만 국내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출소 후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출소자들(원혜옥, 2014; Kenemore & Roldan, 2006)에게 상담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의 출소자 대상의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출소자에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재범률이 낮아짐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심리상담에 대한 참여자의 동기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참여자의 동기 수준과 상담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Ilagan, Vinson, Sharp, Ilagan & Oberman, 2015)에서는 내담자의 동기 수준을 5단계(사전 고려단계, 고찰단계, 준비단계, 조치단계, 유지단계)로 분류하고 내담자가 상담 전에 자신의 동기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 동기 수준과 상담 후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화에 대한 동기 수준이 상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단계와 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상담 후에 증상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가장 낮은 동기 수준을 보고한 사전 고려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상담 효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가장 높은 수준의 유지 단계의 내담자는 증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연구에서는 유지단계에 있는 내담자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출소

자들은 고찰단계와 준비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 수준을 가진 출소자에게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심리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동기가 부족한 출소자들에게는 출소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숙식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상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출소자들을 위한 의무상담의 효과를 더 키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찾는 출소자들이 아직 많지 않기에 가족이 있거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출소자들 보다 자활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열악한 숙식지원 대상자들에게 의무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추후, 출소자 특성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본 연구와 같은 효과 검증 연구를 통해 개선되고, 수정될 필요가 제시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숙식지원 대상의 출소자들에게 3회의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금보다 장기적인 심리상담 회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해외논문에서 심리상담 회기를 평균 6-10회기를 갖게 되면 신뢰할만한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고(Stiles & Snow, 1984; Wilson, Mason, & Ewing, 1997), 평균적으로 16회기의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였을 때 상담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Leichsenring, 2001).

현재 공단에서는 긍정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출소자의 심리적응상태를 파악하는 심리건강척도 개발을 진행했으며, 출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1:1 개인상담과 집단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심리검사 및 해석, 가족의사소통 및 부부대화법 등을 교육하는 가족교육, 2가구 이상의 출소자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심리상담 접근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범죄자들에게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지만(Landenberger & Lipsey, 2005) 국내에서는 어떤 심리상담 접근법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중단연구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출소자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자료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출소자에 대한 공단의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이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해외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국내에서는 출소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Vontress, 1969; Anderson, & Middleton, 2010; Yates, 2013)과 국내 출소자를 대상으로 만 명이 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여 출소자의 재범에 미치는 보호사업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5년 전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최초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현재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제언을 하면, 공단에서 출소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의무상담 시스템(3회기)은 출소자에게 심리상담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기에 그 회기 수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회기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리 진단 및 피드백 3회, 심리 및 행동 개선 계획 수립 3회, 개선안 실행 지원 및 피드백 3회 총 10회 내외로 회기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정본부가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출소자의 수용기록정보와 형사사법정보(범죄 유형, 재범 횟수 등)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에 대한 관리가 수감부터 사회 재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무행정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단 내부에서는 출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상담 전문가 TFT를 조직하고, 이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7년 보호사업을 제공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만으로 모든 출소자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보호사업을 지원 받은 출소자들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보호사업을 재 지원 받은 출소자들을 통해 재범유무가 확인됐기 때문에 공단의 보호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출소자들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 여부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 외에 출소자의 재범 여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출소자의 개인적 특성 중 음주여부의 경우, 2017년 보호사업 참여 당시 ‘현재’ 수준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출소자들의 경우 음주가 불가능한 수용시설에 있다가 출소하므로 평생 음주 여부가 아닌 현재 시점의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였고, 동일한 이유로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 나이 등을 통제했지만, 본 연구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은 정신병리와 적응능력 등의 개인변인이 재범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가 아닌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가진 특성”의 효과 혹은 “숙식/취업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특성”의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보호사업 숙식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이외에도 주거지원, 원호지원, 자녀학업지원 그리고 가족희망사업과 같은 공단의 다양한 보호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보호사업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횡수라는 연속

변수가 있었으나, 공단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재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공단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상담과 자발적 상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후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들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횡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출소자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위한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꾸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출소자 개인의 심리적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재범을 낮추게 했는지 상담 효과의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경, 박인숙 (2005).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 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27), 57-78.
- 고명숙, 천성수, 박영일, 김명석, 박종순 (2000). 문제음주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 60-71.
- 국가지표체계 (2016). 재범률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76.
- 김기홍 (2010). 수용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발표논문지*, 9-32.

- 김명석, 이경중, 김소연, 서경현, 박영일 (2002). 문제음주가 범죄 행위 여부에 미친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34-243.
- 김승만, 신연희 (2005). 장기수형자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식, 서호영 (2009).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42), 163-192.
- 김지선, 정슬기 (2015).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음주 관련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3), 35-57.
-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교정연구*, (50), 115-139.
-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2016).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23(2), 469-490.
- 민원홍, 원 일 (2017).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7) 1-19.
- 박혜경, 한순옥, 박시연 (2017). 법무보호대상자의 진로자본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2), 400-413.
- 배임호 (2013).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교정연구*, (60), 113-134.
-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2016. 법무연수원.
- 신이철, 정진연 (2014). 가족지원사업의 법률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해외동향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 연구용역과제*.
- 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교정연구*, 31(0), 89-116.
- 원혜욱 (201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의 검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지*, 1-19.
- 유수연 (2015).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15(1), 51-77.
- 윤기원, 이동훈 (2017).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65-785.
- 이동훈, 박성현, 조현주, 박선영, 신지영, 오대연, 조진욱, 오세준, 임인구, 류석진, 노지애 (2014).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 이동훈, 김보라, 강수운, 김진혁 (2017). 공단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 연구용역과제*.
-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2017).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303-319.
- 이민식, 김혜선 (2009). LSI-R 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사정책연구*, (77) 157-187.
- 이윤호, 윤옥경, 남재성, 한혜현, 김순석, 김대권 (200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인곤 (2015).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3), 153-180.
- 이철호, 이민규 (2007).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35-46.
- 이현희 (2004).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97-121.
- 장희숙 (2008).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교정연구*, (39), 163-190.
- 장유희, 손외철 (2017).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적 재범예측요인 분석. *보호관찰*, 17(1), 231-271.
- 조운오 (2016). 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징 및 재범 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25-146.
- 조희원, 도광조 (2014).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32) 51-81.
- 차진경, 신현주 (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범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 272-304.
- 최영신 (2009).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77(0), 997-1018.
- 최응렬, 김종길 (2011). 외국의 수형자 재활프로그램의 현황 및 비교 고찰. *사회과학연구*, 18(3), 75-99.
- 최인섭, 박철현 (1994).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4(20) 7-108.
- 통계청 (2016). 경찰청 통계DB조회,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4201&dbUser=NSI_IN_13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2016년 보호실적. https://koreha.or.kr/board/list.do?jsessionid=30DEBFBFD51A70174482C71993E6CA066?MN1=3&MN2=18&MN3=49&MN4=49&BRD_ID=S_Performance
- Adorjan, M., & Chui, W. H. (2014). Aging out of crime: Resettlement challenges facing male ex-prisoners in Hong Kong. *The Prison Journal*, 94(1), 97-117.
- Anderson, S. K., & Middleton, V. A. (2010). *Explorations in diversity: Examining privilege and oppress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Cengage Learning.
- Berg, M. T., & Huebner, B. M. (2011).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28(2), 382-410.
- Benda, B. B. (1997). An examination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different forms of delinquency withi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2), 163-186.
- Benda, B. B., & Whiteside, L. (1996). Testing an integrated model of delinquency using LISREL.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1(2), 1-3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 Cooter, R. (1998). Expressive law and economic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27(S2), 585-607.
- Craig, L. A. (2008).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effect of age on sexual recidivism?.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4(3), 185-198.
- Dadashazar, N. (2017). Offender recidivism: A quantitative study of motivational risk factors and counseling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 Dowden, C., & Brown, S. L. (2002). The role of substance abuse factors in predicting

- recidivism: A meta-analysis. *Psychology, Crime and Law*, 8(3), 243-264.
- Gee, J., & Reed, S. (2013). The HoST programme: A pilot evaluation of modified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with female offenders diagnos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 Counselling*, 15(3), 233-252.
- Giordano, P. C., Cernkovich, S. A., & Rudolph, J. L. (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990-1064.
- Hanson, R. K., Gordon, A., Harris, A. J., Marques, J. K., Murphy, W., Quinsey, V. L., & Seto, M. C. (2002). First report of the collaborative outcome data project on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2), 169-194.
- Harris, G. T., & Rice, M. E. (2007). Adjusting actuarial violence risk assessments based on aging or the passage of t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3), 297-313.
- Harrison, B., & Schehr, R. C. (2004). Offenders and post-release jobs: Variables influencing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9(3), 35-68.
- Hulbert, R. (2010). Going beyond the expect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specialized programming in the Virginia doc. *Corrections Today*, 72(4), 58-61.
- Ilagan, G., Vinson, M. L., Sharp, J. L., Ilagan, J., & Oberman, A. (2015). Exploring outcomes and initial self-report of client motivation in a college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3(3), 187-194.
- Kadish, T. E., Glaser, B. A., Calhoun, G. B., & Risler, E. A. (1999). Counseling juvenile offenders: A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19(2), 88-94.
- Kendler, K. S., Lönn, S. L., Sundquist, J., & Sundquist, K. (2017). The role of marriage in criminal recidivism: A longitudinal and co-relative analysis.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6(6), 655-663.
- Kenemore, T. K., & Roldan, I. (2006). Staying straight: Lessons from ex-offender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1), 5-21.
- Kim, B., Benekos, P. J., & Merlo, A. V. (2016). Sex offender recidivism revisited: Review of recent meta-analyses on the effects of sex offender treatment. *Trauma, Violence, & Abuse*, 17(1), 105-117.
- Kruttschnitt, C., Uggen, C., & Shelton, K. (2000). Predictors of desistance among sex offenders: The interaction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s. *Justice Quarterly*, 17(1), 61-87.
- Lancaster, C., Balkin, R. S., Garcia, R., & Valarezo, A. (2011). An evidence based approach to reducing recidivism in court referred you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4), 488-492.
- Landenberger, N. A., & Lipsey, M. W. (2005). The positiv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offenders: A meta-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trea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4), 451-476.
- Langan, P. A., & Levin, D. J. (2002).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94. *Federal Sentencing*

- Reporter*, 15(1), 58-65.
- Lee, M. Y., Uken, A., & Sebold, J. (2007). Role of self-determined goals in predicting recidivism i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1), 30-41.
- Leichsenring, F. (2001). Comparative effects of short-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depression: A meta-analytic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3), 401-419.
- Lösel, F., &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 117-146.
- Makkai, T., & Payne, J. (2003). *Drugs and crime: a study of incarcerated male offender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Maltz, M. D. (2001). *Recidivism*. Orlando, FL: Originally published by Academic Press.
- Needham, M., Gummerum, M., Mandeville Norden, R., Rakestrow Dickens, J., Mewse, A., Barnes, A., & Hanoch, Y. (2015). Association between three different cognitive behavioral alcohol treatment programs and recidivism rates among male offenders: Findings from the United Kingdom.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9(6), 1100-1107.
- Newton, D., Day, A., Giles, M., Wodak, J., Graffam, J., & Baldry, E. (2018). The impac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recidivism: A systematic review of current experimental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1), 187-207.
- Piquero, A. R., Jennings, W. G., Diamond, B., & Reingle, J. K. (2015). A systematic review of age, sex, ethnicity, and race as predictors of violent recid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9(1), 5-26.
- Rohsenow, D. 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752-756.
- Rothbard, A. B., Wald, H., Zubritsky, C., Jaquette, N., & Chhatre, S. (2009). Effectiveness of a jail based treatment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co occurring disor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7(4), 643-654.
- Sampson, R. J., & Laub, J. H. (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5), 609-627.
- Sampson, R. J., & Laub, J. H. (2003). Life-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41(3), 555-592.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Conger, K. J. (1991). Parenting factors, social skills, and value commitments as precursors to school failure, involvement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6), 645-664.
- Skardhamar, T., & Telle, K. (2012). Post-release employment and recidivism in Norwa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8(4), 629-649.
- Skelton, A., & Vess, J. (2008). Risk of sexual recidivism as a function of age and actuarial

- risk.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4(3), 199-209.
- Stiles, W. B., & Snow, J. S. (1984).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3-12.
- Visher, C. A., & Travis, J. (2003). Transitions from prison to community: Understanding individual pathwa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1), 89-113.
- Vontress, C. E. (1969). Cultural difference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38(3), 266-275.
- Watt, B., Howells, K., & Delfabbro, P. (2004). Juvenile recidivism: Criminal propensity,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1), 141-153.
- Wilson, S. B., Mason, T. W., & Ewing, M. J. (1997). Evaluating the impact of receiving university-based counseling services on student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3), 316-320.
- Yates, P. M. (2013).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Research, best practices, and emerging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8(3-4), 89.

원 고 접 수 일 : 2018. 06.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8. 05

계 재 결 정 일 : 2018. 09. 28

A Study on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on Recidivism of Ex-Offenders

Dong Hun Lee

Si Hyeong Kim

Eun Bi Kwon

Hyun Jung Suh

Sungkyunkwan University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x-offenders,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on recidivism. Participants were 10,348 ex-offenders who received services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n 2017. 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n recidivism. The results indicated that ex-offe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influenced recidivism. Additionally, thos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had lower rates of recidivism.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x-Offenders, Rehabilitation Services,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Recidivism, Effectiveness Verification*